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소 진료체계 준비 및 방역 인프라 구축 방안

김 두
수의내과학 박사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kimdoo@kangwon.ac.kr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에 “식품 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의 주관 하에 각계 대표가 참가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화과정과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의 결과 중 ① 우리나라 소 진료 분야 종사 수의사 실태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②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③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및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제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추진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수의사처방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I. 수의사처방제 도입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수 예측

1. 소 진료전문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가. 각 축종별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2008년 12월 기준으로 주요가축의 전국적인 사육두수는 한·육우는 181,196호에서 2,430,389두, 젖소는 7,000호에서 445,754두, 돼지는 7,681호에서 9,087,434두, 닭은 3,196호에서

119,783,943수 이었다. 각 광역시도와 시군의 가축 수에서 통계청 통계자료와 행정통계 통계자료는 수치에 차이가 있었으며 행정통계의 가축 수가 통계청 발표의 가축 수보다 약 10% 정도 많게 조사되었다(표 1).

〈 표 1. 광역시/도 단위별 가축 수(2008년 12월 통계청 자료 기준) 〉

시군별	한육우	젖소	산양	면양	시슴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전 국	2,430,389	445,754	372,447	1,800	97,856
서울특별시	417	99	155		145
광주광역시	4,821	684	771	0	205
대구광역시	16,895	3,035	3205	0	270
대전광역시	4,866	10	988	20	149
부산광역시	1,874	619	1564	0	456
울산광역시	23,589	1,088	3077	0	1124
인천광역시	17,877	3,648	3,261		1,672
강원도	196,820	16,766	18,310	1,071	9,230
경기도	240,428	174,992	17001	45	16658
경상남도	258,240	28,056	56960	64	7665
경상북도	486,847	41,320	39599	20	7655
전라남도	404,882	31,619	55436	148	9212
전라북도	273,862	34,278	62,844	134	24,534
제주도	26,814	4,907	921	24	857
충청남도	308,312	81,711	32,698	58	15,367
충청북도	163,845	22,922	29,225	52	8,310

나. 가축환산단위 설정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될 경우 각 축종별로 필요한 진료수의사를 산출하기 위하여, 치료대상이 되는 각 가축의 사육두수를 표준화하는 환산이 필요하여 젖소(1)를 기준으로 하고 한육우는 0.3, 말은 1, 돼지는 0.1, 산양은 0.05, 면양은 0.05, 시슴은 0.1로 가축단위를 설정하였다.

소 진료전문수의사가 담당하는 전국의 가축을 젖소단위로 환산한 결과,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는 1,203,369두이었으며 행정통계 기준으로는 1,314,833두이었다(표 2).

〈 표 2. 광역시/도 단위별 젓소 단위 환산 가축 수 및 수의사 과부족 〉

시군별	젓소단위	젓소단위	적정	수의사수	적정	수의사수	실제	수의사수	부족
	인원	부족인원	수의사	당	가축수	수의사	당	가축수	통계청
	두수	두수	명	명	명	명	명	두수	두수
전 국	1,203,369	1,314,833	963	1,052	935	28	117	1,287	1,406
서울특별시	246	246	0	0	0	0	0	0	0
광주광역시	2,189	2,189	2	2	12	-10	-10	182	182
대구광역시	8,291	8,291	7	7	16	-9	-9	518	518
대전광역시	1,535	1,571	1	1	3	-2	-2	512	524
부산광역시	1,305	1,305	1	1	2	-1	-1	653	653
울산광역시	8,431	8,431	7	7	9	-2	-2	937	937
인천광역시	9,341	10,384	7	8	4	3	4	2,335	2,596
강원도	77,704	80,947	62	65	54	8	11	1,439	1,499
경기도	249,639	260,277	200	208	116	84	92	2,152	2,244
경상남도	109,146	126,910	87	102	136	-49	-34	803	933
경상북도	190,121	211,762	152	169	180	-28	-11	1,056	1,176
전라남도	156,784	167,894	125	134	125	0	9	1,254	1,343
전라북도	120,410	130,031	96	104	80	16	24	1,505	1,625
제주도	13,084	16,002	10	13	23	-13	-10	569	696
충청남도	177,379	204,839	142	164	125	17	39	1,419	1,639
충청북도	74,370	83,754	59	67	50	9	17	1,487	1,675

다. 소 진료전문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소 진료전문수의사는 한육우, 젓소, 말, 산양, 면양, 사슴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수의사로 정의하였다. 소 산업의 경우 각 시군별로 환산한 가축단위를 소 진료전문수의사당 담당두수로 나누어 적정 인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진료수의사당 젓소단위 1,250두를 설정하여 각 광역단위와 시군별로 적정 수의사를 산출하였다.

통계청 가축통계에 근거한 소진료수의사의 적정 수는 전국적으로 960명이 필요하였으며 행정통계의 가축통계에 근거한 적정 수의사 수는 1,052명으로 산출되었다(표 2). 전국적으로 말 사육 두수는 24,951두로서 말 전문 수의사는 20명이 필요하였다.

2. 소 진료전문수의사 실태 조사

2009년 8월 말 현재 각 시군 행정조직 단위로 활동 중인 산업동물진료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실태를 현장조사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935명이었으며 말 진료수의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30명이었다(표 2).

소진료수의사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180명이 활동하고 있어 수의사당 1,176두의 젓소단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경기도는 116명이 활동하며 수의사당 2,244두의 젓소단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23명의 소진료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수의사당 696두의 젓소단위를 담당하였다.

가. 현 진료체계에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수의 적정성

농가의 자가 치료가 허용되는 현 제도 하에서 현재 활동 중인 소 진료전문수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은 수의사당 젓소는 약 3,000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한우는 10,000두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전국 단위로 분석할 경우 현재의 활동 수의사당 1,406두의 젓소단위를 진료하고 있어 실제 진료할 수 있는 젓소 단위 3,000두의 절반 정도 밖에 관리하고 있지 못하여 수의사가 약 2배 정도 과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단위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의 시/군(강화군, 삼척시, 이천시, 여주군, 고양시, 연천군, 완주군, 예산군, 청원군)이 수의사당 젓소단위 3,000두 이상이었으나 이러한 지역은 인근 시/군의 수의사들이 진료를 일부 담당하고 있어 수족한 수의사를 보충하고 있었다.

3.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소 산업에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2009년 6월 기준으로 소 진료전문수의사는 전국적으로 통계청 가축 통계 기준으로는 28명 부족, 행정통계의 기준으로는 117명이 부족하였다. 말 진료 전문수의사는 전국적으로 10명이 과잉이었다.

광역행정단위에서 소 진료전문수의사가 과잉인 지역은 행정통계 가축 기준으로 경상남도는 34명, 경상북도 11명, 제주도 11명, 광주광역시 10명, 대구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 2명, 울산광역시 2명, 부산광역시 1명이 과잉이었다.

소 진료전문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행정통계 가축 기준으로 경기도 92명, 충청남도 39명, 전라북도 24명, 충청북도 17명, 강원도 11명, 전라남도 9명, 인천광역시 4명이 부족하였다. 각 시군단위로 는 수의사가 없는 시군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도시화되어 가축사육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 단위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지역은 인근 시군에서 활동하는 수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축 수가 적은 지역에 수의사가 과잉인 경우는 인근의 다른 시군의 가축 진료를 맡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신안군의 경우에는 3명의 소 진료전문수의사가 필요하였지만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가 없어 인근 시군의 수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4. 소 진료전문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가. 처방제 전면적 실시 시 수의사 과부족 지역의 해소 방안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소 진료전문수의사는 전국적으로 통계청 가축 통계 기준으로는 28명 부족, 행정통계의 기준으로는 117명이 부족하였으며, 지역 간에 수의사의 과부족 상대에 편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의사가 부족한 시/군으로 동물병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물병원시설 지원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의사 부족 수치는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 실시되어 수의사 당 쫓소단위 1,250두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부족 인원이다.

처방제 실행 단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방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첫 해째인 2011년에 수의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사 당 쫓소단위 1,500두를 설정한다면 전국적으로 소진료수의사가 802명 필요하게 되어 현재 활동 중인 수의사가 935명으로 133명의 수의사가 과잉으로 계산된다.

현재 활동 중인 소진료수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 진료수의사들은 현재 수의사당 일일 5.2두를 진료하고 있으나 하루 최대 진료 가능한 진료 두수는 9.5두로 응답하여 현재 활동 능력에 비하여 진료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처방제 실시로 인하여 진료 건수가 2배 정도로 증가할 경우에도 진료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규 수의사의 보충 방안

2009년 11월에 실시한 전국의 수의과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표 3), 현재 매년 졸업 인원 600명 중 약 76명이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수의사 처방제의 전면적인 실시 시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이 처방제의 실행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충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 산업에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가축의 행정통계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 117명을 점진적으로 보충하고 매년 은퇴하는 수의사를 보충하기 위한 수의사는 감안할 때, 소 분야에서 매년 약 50명 정도의 신규 수의사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의과대학 졸업생 중 매년 55명 정도가 소진료수의사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어 처방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부족한 수의사와 은퇴하는 수의사의 교체에 필요한 인원이 졸업하는 수의사들로 점진적으로 충원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 전국 수의과대학 3~4학년생의 졸업 후 진출 희망 분야〉

졸업 직후			졸업 10년 후		
진출분야	명	비율(%)	진출분야	명	비율(%)
소	47	9.2	소	50	9.8
돼지	7	1.4	돼지	6	1.2
닭	6	1.2	닭	5	1.0
말	5	1.0	말	4	0.8
반려동물	209	40.9	반려동물	222	43.4
야생동물	9	1.8	야생동물	13	2.5
연구직공무원	28	5.5	연구직공무원	36	7.0
행정직공무원	42	8.2	행정직공무원	53	10.4
일반기업	32	6.3	일반기업	24	4.7
농협마사회 등	5	1.0	농협마사회 등	5	1.0
교육기관	51	10.0	교육기관	34	6.6
군장교	28	5.5	군장교	2	0.4
공익수의관	14	2.7	공익수의관	0	0
기타	25	4.9	기타	37	7.2
무응답	3	0.6	무응답	20	3.9
계	511	100.0	계	511	100.0

1) 신규 소 진료전문수의사의 유치 방안

- 가)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희망 진출 분야는 사회적 또는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소 진료 분야에 진출하고자하는 유능한 수의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자금 을 지원하고 소 전문동물병원 개원 시에 시설자금 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학생들이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첫 째, 산업동물 분야가 경제적으로 안정 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둘 째 수의과대학 학생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동물 전문동물병원에서 진료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시군 단위로 소 전문동물병원을 통합하여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규 수의사를 유치한다.

다. 미국의 산업동물 수의사 유치 사례

미국에서는 식품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수의사가 적절하게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풍부하고 안전 하며 건전한 식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임무를 갖고 식품공급수의학연 합(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 이하 FSVMC)이 2004년에 결성되었다.

FSVMC의 전제는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은 수의사가 생산과 가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때 강화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2016년까지 12.64%의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수의사가 부족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FSVMC는 아래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11가지의 권장사항을 제시되었다.

- 1)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수의사의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group들(미국수의과대학협의회, 미국수의사회, 캐나다수의사회 및 각 주수의사회, 미국소수의사회, 미국돼지수의사회, 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사이에 그 긴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식품생산동물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을 활발하게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홍보를 강조해야 한다. 논리가 정연하고 정력적인 연결가 그룹을 결성하여 다양한 학생, 직업소유자 및 산업체 그룹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것을 제안한다.
- 4)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교육을 저학년에서 실시하여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학부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졸업할 때 식품생산동물 진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졸업한 수의사들에게는 감독과 mentorship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 수의과대학 예비학과 (우리나라는 예과과정이 이에 해당)에 참여하는 학생과 수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 (우리나라의 본과1학년에 해당)에게 식품생산동물 취급기술을 훈련시켜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로 활동할 때의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 6) 겸임교수로서 유능한 개업 수의사의 지원을 받는다.
- 7) 학생의 훈련을 위해 산업체의 지원을 받는다(예: 장학금, 지도교수제도, 산업체와 대학의 internship).
- 8) 동물병원의 규모를 키워서 동물의 종별로 전문수의사가 서너 명씩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축산농가에게 건강 및 생산관리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개체진료 서비스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진료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의보조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 9) 수의과대학에서 식품생산동물을 위한 고급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10)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된 졸업생에게 근무 헷수를 기준으로 학자금을 부분적으로 경감해 주도록 촉구한다.
- 11) 식품생산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졸업생들에게 진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FSVMC의 권장에 따라 미국수의사회(AVMA)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수의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National Veterinary Medical Service Act”의 실질적인 시행과 연방정부 차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농업부장관이 정한 저개발 낙후지역 진료수의사 혹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비 대부 및 채무변제 프로그램(Loan repayment program, debt forgiveness)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등 긴급 방역이 필요할 경우 일선 수의사 등을 활용한 Veterinary National Guard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 혹은 생산자단체에서도 시골 등 오지에서 일정 기간 식품생산동물 진료 업무 수행을 약속한 수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비 대부 및 채무 변제 프로그램(Veterinary loan repayment program)을 운영 중에 있는데 2008. 8월 기준으로 조지아주, 캔자스주, 루이지애나주, 미주리주, 마인주, 네브라스카주, 뉴햄프셔주, 노스다코다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펜실바니아주,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등 13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Kentucky 주는 새로 개업하는 수의사에게 10만 달러까지 저리로 15년간 대출해 주는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FDA의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도 10주 과정의 인턴과정(Summer Interim Program, 급여수준 \$4,455~6,105)을 운영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외국학생 및 미국 수의과대학 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FDA의 활동 소개 및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II.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1. 우리나라 수의과대학의 부속동물병원에서는 소 진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소 질병에 대한 임상실습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도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대체로 소전문동물병원에서 임상연수를 약 1년 정도 실시하고 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수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의사 처방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산업동물임상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각 축종별로 신규수의사와 중견수의사에 대한 임상실기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산업동물 임상교육을 집중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 산업동물에 대한 기본이론 교육을 학부과정에서 교육시키고 졸업 후에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수의사들에게만 산업동물별로 심화교육을 시키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와 같이 전문의 교육제도를 두어 소 분야에서 임상을 전문화할 전문 수의사를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소전문수의사는 수의과대학 졸업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케하고 이를 통과한 경우 소 전문수의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리고 소 전문수

의사만이 인턴 수의사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수의임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수의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대한수의사회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학문별/직능별 교육 프로그램과 수련과정(internship과 residentship)을 개발하고, 인정 기준과 자격부여 법령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아니라, 사람의 전문의제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수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3. 대한수의사, 한국우병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에서 개최하는 강습회, 연례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면허취득 후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4. 수의학교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제를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수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제 기준에 걸 맞는 세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육성한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한국수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등록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학교육평가인증원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을 이까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로 소 분야의 임상에 종사할 수의사가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program을 제시하였다.

III.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방향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비교

- 1) 미국에서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산업동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1인의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한 동물병원에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2) 유럽에서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소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여러 명의 수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혼합 진료하는 체제이다. 소 진료 수의사는 개체 동물의 치료와 함께 HACCP-like program과 herd control을 실시하며 animal welfare의 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의 수입이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보다 낮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영국에서는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3) 일본은 가축공제제도를 통해 가축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축산농민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가축공제에 가입한 축산농민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염가에 제공 받고 있으며 공제제도에 의한 소의 진료는 산업동물의

건강·복지 및 동물성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생산단계에서 지켜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국가는 가축공제제도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소와 말의 경우 50%, 돼지의 경우 40%를 국가가 부담하고, 군(群, herd) 건강관리 사업에는 60%를 지원해주어 축산분야에 연간 약 550억엔(2005년)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공제조합에서는 가축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가축진료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북해도연합회에서는 임상연수소(研修所)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진료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수소의 지원으로 인해 진료소 수의사들의 실력은 미국 수의사들과 대등하며 2005년 현재 전국 조합 및 연합회에 288개의 진료소 설치, 1,66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북해도에서는 진료소당 7.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며, 수의사 1인당 젓소단위로 환산하여 약 1,250두를 담당하고 있다. 가축공제조합의 진료소에는 매년 80명 정도의 신규수의사가 조합에 취직하여 정년퇴직하거나 사직하는 수의사를 대체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방향

-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소 진료 전문동물병원이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대적인 축산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의사들 자신도 동물병원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반경 약 35km 마다 시군 단위로 소 전문동물병원을 통합하여 수의사 처방제 실시에 부합되도록 동물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동물병원들이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동물병원 통합운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규모의 확대와 현대화로 업무능력을 향상, 2) 수의사처방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 3) 서비스 영역의 확대, 4) 체계적인 가축질병 방역 담당, 5) 동물병원 운영경비 절감, 6) 동물병원 소득의 증가, 7) 농민의 요구에 부합, 8) 수의사의 삶의 질 향상, 9) 신규 수의사 인력 흡수 용이 등이다.
- 2) 소 전문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4.3%가 시군 단위로 동물병원을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여 대부분의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은 수의사 처방제의 실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통합하여 시대에 맞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 3) 시/군 단위로 통합된 통합동물병원은 주 업무로서 젓소와 한우를 비롯한 반추수의 진료를 담당하며 24시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응급진료에 대처한다.
- 4) 시군 단위 통합동물병원은 말, 돼지와 양계 전문동물병원이 없는 시군에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타 축종의 전문동물병원과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1차 진료를 담당하거나 간접처방을 실시한다.
- 5) 소 전문 통합동물병원은 반추수에 대한 질병발생 예방업무, 질병 consulting, 예방접종, 채혈 등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방역 업무를 보조한다. 또한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 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 6) 통합동물병원의 공간이나 시설 장비의 규모는 일본의 가축공제조합 진료소의 시설과 유사하게 수술실과 진단장비를 갖추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7)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 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8)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가축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통합된 동물병원을 가축공제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소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1. 시군단위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 설치와 방역업무 통합

- 1) 지역 내의 신속한 질병 발견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방역조직을 시군 단위의 통합된 동물병원에 통합하여 수 의사와 관련된 직원 모두가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방역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된 동물병원에 국가 방역 업무가 주어질 때 전 구성원에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져 지역의 방역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2) 반경 약 35km 단위(시군구 단위)로 가축의 질병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가칭)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가축의 치료, 공수의 업무, 가축집단의 군건강관리,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찰 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브루셀라 진단용 채혈, 수정업무 등 국가의 동물질병 방역정책의 시군구 단위 방역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 3)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 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흡수하여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 4) 그동안 분산되어 지급되던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채혈 시술비,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등 국가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시군 단위로 통합된 동물병원에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던 동물병원 업무와 공동방역사업 업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시군구 출장소 업무를 통합된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